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에 관한 연구

전북산업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정연자

目 次	
I. 서론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 : '에코룩(eco-look)'의 특성
II. 에콜로지	IV. 결 론
1. 에콜로지의 개념	참고문헌
2. 현대 디자인에서의 에콜로지	ABSTRACT

I. 서론

복식은 사회적 특성이나 습관, 사상, 기술의 시각적인 표현 중의 하나로서,¹⁾ 총체적인 문화의 한 단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 또는 방법이다.²⁾ 따라서 복식은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³⁾

'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온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쳐 녹색 운동의 기본이념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 하는 그린 디자인(Green design)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⁴⁾

그 결과 디자이너는 그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을 의식하고,⁵⁾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태학적 심미주의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여야 하는⁶⁾ 의무를 부가적으로 갖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나타난 반가운 반응이 디자이너들의 "Greening"이라는 행동 코드⁷⁾이다. 이는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책임감과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코드이다.

이런 배경 하에 의복에 있어서도 1989년 부터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생태주의가 패션테마로 등장하여 다양한 주제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는 오염되어 가는 지구 환경을 지켜 편안하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동시대인들의 공감대가 의복에 나타난 것⁸⁾으로서, 21세기에 이르면 지구를 생각하는 패션, 환경으로서의 의복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 즉 현대 '에코룩(eco-look)'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행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 보는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서술 방식은 우선 문헌 연구로는 에콜로지의 개념과 현대 디자인에서의 에콜로지에 대한 내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실증적 분석으로는 에콜로지 패션 테마가 등장한 1989년부터 1996년까지 Collection, Vogue, Moda in 등에 실린 자료 가운데 의류학 전공자 2인이 에코룩이라고 판단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외적 형태와 특성을 분석 고찰 하였다.

특히 이 분석에서는 Wölflin⁹⁾이 제시한 양식의 이중 근원에 따라 형식미와 내용미를 살펴보았으며, 복식의 형태 분류 방법은 Horn과 Gurel이 분류

한¹⁰⁾ 구조적 형태(Tailored garment), 비구조적 형태(Draped garment), 혼합 형태(Composite garment)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II. 에콜로지

1. 에콜로지의 개념

‘생태학(Ecology)’이란 말은 집 혹은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인 오이코스(oikos)와 학문을 의미하는 로고스(logos)의 합성어로서,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생물과 그 환경 전체에 대한 탐구”¹¹⁾라고 정의되어 있다.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Thoreau(1858)가 최초로 아무런 정의없이 사용하였고,¹²⁾ 1886년 독일의 생물학자인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이 처음으로 ‘유기적 환경과 무기적 환경 전체에 대한 동물의 관계를 취급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학문용어로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¹³⁾

생태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생태계, 즉 생명체의 ‘환경’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개체를 둘러싼 모든 외계(外界)를 호칭¹⁴⁾하는 것으로서, 생명체는 이 환경과 조화로운 일체를 이루는 가운데 최적의 적응 생활을 한다. 인간 역시 다른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사회 생활의 기회를 극대화(Maximization)¹⁵⁾하고 있다.

환경은 불어 ‘milieu’에서 기원하여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어원은 mi는 medium(중양 : middle), lieu는 locus(장소 : place)로서 넓은 의미의 인간 환경은 “자연의 진화 과정에서 나온 여러 요소와 문화를 바탕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요소”를 뜻하고, 좁은 의미의 인간 환경은 “인간이 생존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자신의 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상황”을 뜻한다.¹⁶⁾

결국 생태학은 생물과 인간의 생활 상태와 환경에 대한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겠다.

현재 미국에서는 ‘에콜로지적’이라는 의미로 ‘친환경력(environmentally friendly, eco-friendl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이제 에콜로지 즉 생태학이란 용어는 환경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2. 현대 디자인에서의 에콜로지

지구는 오직 하나 뿐이며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하는 공통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생활의 ‘질적 향상’에 점점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일상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여 정도으로써 평가받는 디자인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다는 생활을 위한 요체이며, 새로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원동력이다.¹⁷⁾

디자인이 구축하는 인위적 환경 세계는 자연과 인간의 생태학적 보상 관계를 통해 항상적인 균형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디자인의 미래가 인류를 현재의 위기로 몰고 온 ‘맹목적인 진보(blind progress)’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 보는 진보(seeing progress)’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미래에 있어 디자인의 성패는 오로지 현재 우리의 균형 감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만 한다.¹⁸⁾

지구의 생태계가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이때 디자인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 디자인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이 생산되고 폐기될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기술과 창조성을 제품에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¹⁹⁾ 이제 진정한 의미로서의 디자인은 생태학적으로 책임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어야 한다.²⁰⁾ 또한 이제까지 디자인이 수행해 왔던 역할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현실에서 환경 오염의 방

지 수단, 인간 환경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CSD(Charterd Society of Designers)는 각 디자이너의 작업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환경 생태에 끼치는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²¹⁾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에콜로지, 환경, 또는 녹색이란 용어는 건축, 산업 디자인 그리고 의복과 같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도 생태학에서 유추한 자연의 세계를 반영하는 형태의 디자인이 제안²²⁾되고 있고,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도 환경 디자인, 생태학적 디자인을 위한 연구²³⁾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조각에 있어서도 환경 조각²⁴⁾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의복 역시 생태학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에콜로지를 주제로 한 디자인이 많이 등장하여 인간과 환경을 실제로 이어주는 구체적인 도구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1972년 ‘유엔환경회의(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설립 이후 에코라벨(Eco-Label)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에코라벨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유토피아를 연상시키는 천사(독일), 자연을 연상시키는 꽃과 비둘기(캐나다), 백조(스칸디나비아), 새와 나무(한국), 지구(프랑스), E : 에콜로지-Ecology, 환경-Environment, 지구-Earth의 머릿글자(일본) 등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⁵⁾

현대 의복에 표현된 에콜로지는 오염된 현재의 환경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생태학적 경향을 자연, 동물, 식물, 광물 등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 일반적인데, 자연주의, 토속성, 상징성등이 그 표현 내용상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특히 자연과 밀착된 원시적인 삶에 대한 동경, 아프리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 등을 표현한 의상과 장식품들은 원시주의로 표현된 에코룩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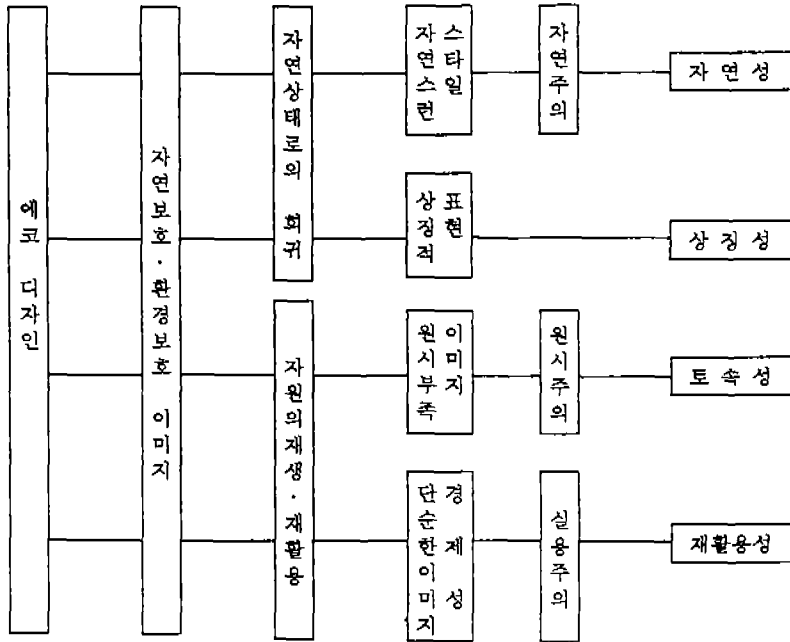
이처럼 1980년 후반 원시적 특성이 패션 테마로 등장하면서 부터는 자연을 상징하는 색상과 색 배합, 문양 등을 통해 자연회귀현상이 자주 표현되고 있다.²⁸⁾

한편 이러한 자연회귀의 에콜로지 테마는 새롭게 변화되어 Recycling(재생, 재활용)의 개념으로까지 전개되고 있으며²⁹⁾ 새로운 감각의 환경보호운동으로 일상 생활에 나타나고 있다. 의상에서는 패치워크 기법을 이용한 스타일³⁰⁾로 표현되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도 역시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는 자연 소재나 가공되지 않은 듯한 소재가 각광받게 되었고, 최근 섬유, 어패럴업계에서는 자원 고갈, 리사이클, 산업폐기물 감소 등의 여러 가지 대책과 더불어 ‘지구에 친근한, 사람에게 친근한 상품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³¹⁾

이상과 같이 살펴본 에콜로지 개념과 디자인에서의 에콜로지 경향을 <표 1>로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표 1〉 에코-디자인(eco-design)의 특성



Ⅲ.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 : '에코룩(eco-look)'의 특성

현대의 환경 친화적 디자인에 나타난 경향들인 자연성, 상징성, 토속성, 재활용성에 근거하여 현대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 즉 'eco-look'의 특성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 보았다.

1. 자연성

Victor Papanek³²⁾는 모든 미적 가치 체계는 자연의 추상적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자연 형태와 생물학적 과정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eco-look'에서의 자연성 추구 경향은 자연과 조화된 인간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 자연성은 자연물을 의복으로 형태화하거나 자연물 그대로를 장식하는 등의 사실적 표현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해초류를

의복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며, 〈그림 2〉는 조개, 소라 등의 자연물을 그대로 장식함으로써 자연과 더욱 가까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으며, 〈그림 3〉은 사실적으로 표현된 초원의 모습과 밀짚모자, 깃털 목걸이 장식으로 의복 자체가 평화로운 자연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외의 작품들에서도 Chloé는 얼룩말과 사슴들이 노닐고 새와 나비들이 날아 다니는 숲을 표현하였고, Michiko Koshino는 푸른 초원에 빨간색, 흰색, 노란색의 튜립, 나무와 하늘을, Tokuko는 바나나를 수확하는 부부농부의 활짝 웃는 모습을 나타내 자연 속에서의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문양이나 장식으로 물고기, 조개 및 해초류, 나무, 새, 꽃, 나비, 벌, 야자수, 돌, 깃털, 얼룩소, 사슴, 정글, 바나나, 산호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모두는 원초적 자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고 자연으로의 회귀 현상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형태에 있어서는 구조적 형태, 비구조적 형태 혼합 형태를 이용하고 있으며 색채는 자연 색채의

유사 조화, 대비 조화로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소재는 신축성 있는 소재, 비치는소재, 니트, 레이스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 디자이너는 Thierry Mugler, Jean-Louis Scherrer, Doby-Broda, Junko Shimada, Y. S. Laurent, Kenzo Takada, Kimijima, Paul Costelloe 등이 있다.



〈그림 1〉 Thierry Mugler
'89 Gap(Collection), Paris-8



〈그림 2〉 Chantal Thomas
'90 Collection, Paris-25.



〈그림 3〉 Kenzo Takada
'92 Collection, Paris-15.

2. 상징성

1980년대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 경향은 초현실주의³³⁾ 팝 아트,³⁴⁾ 펑크,³⁵⁾ 자연주의³⁶⁾ 등 다양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환경과 자연 보호를 상징하는 의상이 활발히 소개되어 왔는데 이는 오염된 지구 환경과 가상 현실을 의상으로 표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커다란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림 4〉

〈그림 5〉는 얇고 비치는 천에 맑은 바닷물의 색깔을 바탕으로 그 위에 금붕어가 노니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으며, 〈그림 6〉는 아직까지 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존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지도가 그려진 지구를 두 손으로 안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Castelbajac은 어린아이와 원숭이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 속에서 동물 사랑을, Hermès는 신대륙발견의 항해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지구사랑을 호소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각기 형태에 있어서는 구조, 비구조, 혼합 형태를, 색채에 있어서는 유사조화와 대비조화, 그리고 소재로서는 비치는 얇은 천과 그물 망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Hermés, Enrico Coveri, Joe Casely-Hayford, Romeo Gigli, J. C. De Castelbajac, Jean-Paul Gaultier, Kimijima 등이 있다.



〈그림 4〉 Moda In
N. 97, p. 111



〈그림 5〉 Tsumori Chisato
'95 N. Y/T. K/Seoul, S/S, Collection, p. 156.



〈그림 6〉 Joe Casely-Hayford
'91 P/L, S/S, Collection, p. 318.

3. 토속성

1967년 Y. S. Laurent에 의해 발표된 아프리카 드레스를 기점으로 토속적 복식이 오피 꾸뛰르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³⁷⁾ 1980년대 이후로는 토속적이며 향토적인 이미지의 대상이 아프리카, 에스키모, 남미 등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 후반부터 원시적 특성을 표현한 의상은 에콜로지 경향과 함께 패션 테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토속성을 표현한 예코룩은 구조, 비구조의 형태로 흙, 나뭇잎, 덩굴, 식물 줄기 등을 묘사하되 갈색 계열의 유사 조화로 자연적 분위기를 표현하였으며 소재는 실, 거칠고 투박한 천, 망, 토속적 재질 등을 사용하여 원시적 느낌을 주었다.

Chantal Thomas는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문양을 이용하여 원시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그림 7〉, Romeo Gigli는 나체에 나무덩쿨같은 소재를 걸친 작품으로 봉제나 일체의 장식을 거부한 의복을 표현했으며〈그림 8〉, 바디페인팅 한 것 같은 소재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여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림 7> Chantal Thomas
'92 P/L, S/S, Collection, p. 263.



<그림 8> Romeo Gigli
'95 P/L, S/S, Collection, p. 166.

또한 Manuel Fernandez는 실 자체를 이용하여 <그림 9>는 토속적인 이미지를 의복으로 형상화하였으며, Workers for Freedom은 휴과 바위의 느낌을 주는 얇은 소재를 최소의 봉제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아직 때문지 않은 원시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바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Romeo Gigli, Chantal Thomas, Nicole Club, Issey Miyake, Workers for Freedom등이 있다.



<그림 9> Manuel Fernandez
'95 N. Y/T. K/Seoul, S/S, Collection, p. 325.

4. 재활용성(Recycle)

현대인들의 자연회귀 본능과 경기 침체는 생산보다는 기존의 제품을 재활용하자는 새로운 감각의 환경 보호 운동을 등장시켰는데 재생·재활용(recycle)이라는 에콜로지 테마가 바로 그것이다.

이 재활용 테마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패치워크 기법과 손뜨개 니트 작품으로 실용성은 물론 편안함과 자연스러운 멋을 찾고자 한다. 이 작품들은 구조, 비구조, 혼합 형태를 이용하였고, 색채에 있어서는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의 방법을, 소재로는 뽀뽀한 천, 부드러운 천, 니트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10>은 조각천으로 패치워크 기법을 이용하여 만든 중국의 민속풍(ethnic look) 드레스이고 <그림 11>은 캐주얼 자켓에 패치워크기법을 사용하여 만든 Moschino의 작품으로 블루 진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대적인 분위기를 표현해주고 있다.



〈그림 10〉 Yuji Yamada
 '93 N. Y/T. K, S/S, Collection, p. 67.



〈그림 11〉 Moschino
 '93, 94 Milan/Madrid, A/W, Collection, p. 120.

재활용의 의미로 대두된 패치워크는 캐주얼에서 포멀한 의복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질적인 소재의 혼합(Mix Match)과 프린트물을 다양하게 조화시켜 세련된 모습을 표현해 준다.

〈그림 12〉는 손뜨개 니트 작품으로 재생·재활용의 에콜로지 테마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다시 풀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생·재활용의 에콜로지 테마는 경제 테마이기도 하다.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Milan Madrid, Youji Yamamoto, J. C. De Castelbajac, Tsumori Chisato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코룩(eco-look)의 조형적 특성을 〈표 2〉로 정리 하였다.



〈그림 12〉 Atsuro Tayama
 '92, '93 P/L, A/W, p. 294.

〈표 2〉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코룩(eco-look)'의 조형적 특성

내용 형식	자연성	상징성	토속성	재활용성
형 태	구조적 형태 비구조적 형태 혼합 형태	구조적 형태 비구조적 형태 혼합 형태	구조적 형태 비구조적 형태 혼합 형태	구조적 형태 비구조적 형태
선	직선, 곡선, 절충	직선, 곡선, 절충	신체노출, 곡선	직선, 곡선, 절충

색 채	자연 색채, 유사 조화, 대비 조화	유사 조화, 대비 조화	자연 색채, 유사 조화, 대비 조화	유사 조화, 대비 조화
재 질	부드러운 천, 신축성 있는 천, 비치는 천, 니트, 레이스	니트, 얇고 비치는 천, 그물망	실, 거칠고 투박한 천, 비치는 천, 망, 토속적 재질	니트, 뻣뻣한 천, 부드 러운 천
문 양	물고기, 조개, 해초류, 나무, 새, 꽃, 나비, 별, 들, 야자수, 깃털, 사슴, 얼룩소, 정글, 바나나, 산호	어선, 그물망, 고기, 닭배, 지구, 아이와 동 물, 해초류, 해양생물, 신대륙발견 황해도	원시적 문양, 나뭇잎·덩쿨, 식물줄 기	직물자체의 문양
모티프	사실적, 약화적	사실적	추상적, 기하학적	기하학적
디자이너	· Thierry Mugler · Jean-Louis Scherrer · Doby-Broda · Lorita Lemicka · Junko Shimada · Y. S. Laurent · Kenzo Takada · Kimijima · Paul Costelloe	· Hermés · Enrico Coveri · Romeo Gigli · J. C. De Castelbajac	· Issey Miyake · Workers for Freedom · Romeo Gigli · Jean-Paul Gaultier · J. C. De Castelbajac · Kimijima	· Milan Madrid · Youji Yamamoto · J. C. De Castelbajac · Tsumori Chisato

IV. 결 론

지구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한정된 자원을 소중히 하고자 하는 운동은 이제 사회적·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콜로지를 주제로 한 디자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의복에서도 1989년 후반부터 에콜로지가 패션 테마로 등장하여 패션계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에콜로지 개념과 현대 디자인에서의 에콜로지적 경향을 중심으로 에콜로지와 환경보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코룩의 특성을 자연성, 상징성, 토속성, 재활용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성은 형태에 있어서는 구조적, 비구조적, 혼합 형태 모두가 사용되었고 자연 색채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의 색채 조화를 이용해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 표

현하였다. 또한 자연물을 그대로 의복으로 형태화한다거나 직접 장식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연, 인간, 의복이 하나됨을 느끼게 해 주었고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자연회귀 현상을 나타냈다.

둘째, 상징성 역시 구조, 비구조, 혼합 형태를 통해 유사·대비의 색채 조화로 환경과 자연 보호를 상징하고 있으며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성과 지구를 살리자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셋째, 토속성은 구조, 비구조, 혼합 형태로 자연 색채와 유사·대비 조화의 색채 조화를 이용해 아프리카나 미개발 지역의 토속적이고 원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아직 물질문명의 인위성에 때문지 않은 순수한 원시상의 추구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재활용성은 구조, 비구조, 혼합형태로 소재끼리의 혼합과 프린트의 조화, 패치워크 기법과 손뜨개 니트를 이용한 작품들로 재활용과 재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코룩의 재활용성은 다른 디자인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재활용·재생 테마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제 테마라고 하겠다.

앞으로는 이처럼 의복에 환경의 문제를 담아 표현하고 있는 에코룩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환경으로서의 복식 디자인, 생태학적 복식 디자인에 접근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패션에도 에코룩의 디자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반가운 반응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필요 하리라 본다. 또한 외국 의상에 표현된 에코룩과 우리나라 패션에 표현된 에코룩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표현방법에 대한 모색과 의식 고취를 위한 대안도 고려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 1) M. J. Horn & L. M. Gurel, *The Second Skin* (Houghton : Mifflin Co., 1981), p. 252.
- 2) James Laver, *Fashions make Social History* (N. Y. : The Brooklyn Museum, 1962), p. 6.
- 3) M. J. Horn & L. M. Gurel, op. cit. p. 252 ; M. E. Roach & J. B. Eicher, *Dress, Adornment & The Social Order* (N. Y. : John Wiley & Sons Inc., 1965), pp. 64~72
- 4) 한소원,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연대 석사학위논문, 1995, p. 16.
- 5) Victor,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London : Granada, 1980), p. 287.
- 6) Breda Dobovisek, "생태학적 디자인", 「산업 디자인」118, 1991, vol22, p. 26.
- 7) June Frazer, "환경정책", 「산업 디자인」118, 91, Vol. 22, p. 22.
- 8) 정연자, "다카다 겐조 작품에 관한 연구", 「복식」, 제21호, 1993, p. 208.
- 9) Wölfflin, H., Translated by M. D. Hottinger, *Principles of Art History* (N. Y. : Dover Publications Inc., 1929), pp. 1~17.
- 10) M. J. Horn & J. B. Gurel, op. cit. p. 252.
- 11) 안승구·정채춘역, 「생태학」, 신평문화사, 1995, p. 15.
- 12) Ibid.
- 13) Donald Hardesty, *Ecological Anthropology* (N. Y. : John Wiley & Sons Inc., 1977, p. 7.
- 14) 이희승 저「국어대사전」, 1991, p. 3457.
- 15) Marshall Sahlins, *Culture & Environment : The Study of Cultural Ecology*, by Robert Manner & Dabid Kaplan, (Chicago : Aldine) p. 369.
- 16) 김용숙, "의류제품 전과정 관계자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행동",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5, p. 7.
- 17) 이재국, "디자인 가치의 본질과 그 근원에 관한 연구", CO. S. MA 5, 1990, p. 151.
- 18) 김민수, "자연 유기 시스템을 통한 디자인의 전개", 「산업디자인」76, 1984, Vol. 15, p. 27.
- 19) Breda Dobovisek, op. cit. p. 26.
- 20) Victor Papanek, *Design for the Real World*, op. cit.
- 21) June Frazer, op. cit. p. 27.
- 22) Ferebee, A., 김경준역, 「디자인의 역사」, 국제, 1991, pp. 96~98.
- 23) 쉘口泰産, 優久木便, "지구환경과 디자인I", 「산업 디자인」119, Vol. 22, pp. 40~48.
- 24)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1990, p. 19.
- 25) 한소원,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op. cit., p. 20.
- 26) 박명희, "현대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학위논문, 1991, pp. 44~45.
- 27) 이선주, "포스트 모더니즘의 패션경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p. 35.
- 28) Ibid.
- 29) "패션 리사이클", 「멋」, 1994, 2. p. 26.
- 30) "경제적인 패션테마, 패치워크", 「멋」, 1994, 1, p. 24.
- 31) "에콜로지 상품개발" 「패션투데이」, 1994, 1, P. 106.

- 32) Victor Papanek, *한도룡, 이해묵 공역*,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1992, p. 149.
- 33) 최윤미, “복식사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pp. 66~68.
- 34) 김민자, “1960년대 팝아트 사조와 패션”, 「한국의류학회지」, Vol. 10, No. 1, 1986, pp. 69~84.
- 35) 김민자, “2차 대전이후 청소년 하위 문화 스타일”-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s와 Punk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Vol. 11, No. 2, 1987, pp. 69~89.
- 36) 최윤미, *op. cit.*, pp. 66~68.
- 37) 하지수,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p. 61.

ABSTRACT

A Study on 'Eco-Look'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ism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i.e. 'eco-look'.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naturalism, symbolism, primitiveness, and concern about recycling.

First, naturalistic tendency can be found in through the method of some contemporary

eco-looks, which are using natural colors, harmonisation of the colors in similarity and in contrast, and expressing in a realistic manner some natural entities or use some ornaments representing them.

Such trends easily let people to feel the clothes unified with the nature and human beings.

Secondly, some contemporary eco-looks express environmentalistic ideas, for examples, the idea for protection of the nature or the idea against pollution of the earth and destruction of (human) nature, in a symbolic way.

Thirdly, primitiveness is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in contemporary eco-looks. It can be found in some eco-looks using primitive or original images of Africa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t reflects the human desire to go back to the nature or to the unity with the nature.

Finally, recycled materials are commonly used in eco-look. Patchwork and handmade knits are popular methods for this mode. They implicate the idea of pragmatism and simplicity in fashion.

One Conclusion of the paper on eco-look : fashion design which can be itself an important environment of human beings has become a very efficient and significant tool to express the idea of ecology.